

‘2세 멘토링, 두 문화 정체성...’ 다음세대 육성이 과제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복합문화속 목회 리더십’ 개최

복합문화에 대한 이해와 목회 리더십, 복합문화 속에서 2세 교육 문제를 깊이 다룸으로 한인 이민교회를 돕는데 목적을 둔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10일부터 11일까지 총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첫날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이학준 박사(폴리신학교 교수, Theology and Ethics)는 “복합문화는 복잡문화”라고 서두를 꺼내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 박사는 “멀티컬처라는 것이 많은 부류로 나뉜다. 목회하면서 보는 멀티 컬처, 장사하면서 보는 멀티 컬처,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경험하는 멀티컬처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말할텐데, 이민자 70% 이상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



한인 이민교회를 돕는데 목적을 둔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총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박형은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민 와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의 자녀가 주류사회에 정당하게 우리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지켜주고 있겠는가. 자녀들이 미국 사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거사 몇 년 동안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가면서 미국의 것을 보는 시각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박사는 “미국에 살면서 백인

들을 만날 때, 그들이 처음으로 보는 것은 남자가 여자나, 키가 낮고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 색깔을 따라서 정체성을 결정한다. 영어를 아무리 능수능란하

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 번째다. 멀티컬처멀티리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민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민자가 감했다고 하는데, 동부에 있을 때 이민교회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한시적인 교회다. 라고 동료하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민교회가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미국 경제가 계속 어렵고, 30년 후에 이민 교회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1세 교회에 나오겠는가, 아니면 나가서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겠는가, 를 생각할 때 현재 추세는 후자다. 그런 면에서 이민교회에서 복합문화 리더십을 생각한다고 할 때, 주

어진 시간에 나의 역사와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 살기 바쁘다 보면 큰 그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역사상 제일 어려운 때다. 제가 생각할 때 이민교회는 피크에서 내려오는 때다. 이제 다음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학준 박사는 “동부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부를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교회를 지을 때 첫째는 방당을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는다. 근대 교육적 컨텐츠를 보면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민교회는 현재 애급의 패러다임이다.

▶ 4면에 이어서 계속

“유대인은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빛진 마음으로 더욱 유대인 전도에 힘쓴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선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야를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대교 출신인 제이 크로니쉬(JayKronish) 목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신과 같이 거두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말씀을 알수록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영적으로 빛진 마음 때문이다.

크로니쉬 목사는 본래 미국 태생의 유대인이자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그는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나고 자라 유대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했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던 그가 1976년도 미국에서 사업차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장모는 신실한 권사였고, 아내도 그 영향을 받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제이 크로니쉬 목사는 아내와 서로의 종교를 존

중하며 지내길 약속했다. 하지만 아내와 장모의 술한 눈물의 기도는 그를 변화시켰고, 결국 그 역시 교회에 다니게 됐다. 그는 교회에서 아내 큰 은혜를 받았고 변화되었다. 그때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갈릴리로 건너가 'KUMI ORI ISRAEL(구미오리 이스라엘)'이라는 기도원을 세워 부부가 함께 목회하고 있다. 'KUMI'는 '달리다'의 여성형이고, 'ORI'는

있고, 한의사를 초청해 의학신교도 하고 있다. 제이 크로니쉬 목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선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바울이 이방인을 보는 마음을 이해한다. 99%의 유대인은 이런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크로니쉬 목사가 그간 겪은 고초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면 누군가 기도원 담벼락에 입에 담지 못할 영어를 잔뜩 나서해 놓는가 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 ‘뿅’ 소리가 나서 가 보니까 작은 화약이 터져 있던 적도 있었다. 또 아내가 한국인인 것을 안 한 동네 할머니는 “이방인 여자를 왜 데려왔느냐”고 구박을 하는가 하면, 노상전도하면서 마주친 유대인 무리에 “넌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유대인을 종종 만나면서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스라엘 거주 메시야니즘은 주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개인 혹은 2-3명 단위의 그룹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에 대해 “2000년 전 하나님은 약속된 백성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셨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제도와 권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위를 예수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유대교인은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해 삼위일체는 부인한다. 또한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로 역사적 상처가 깊다. 물론 히틀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학살한 자행했던 것이 아님에도 그가 가톨릭 집안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과 부딪히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유대인 제이 크로니쉬(JayKronish) 목사는 'KUMI ORI ISRAEL(구미오리 이스라엘)'을 갈릴리 지역에 세워 목회하고 있다.

“유대인 구원 위해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 절실”

갈릴리서 목회하는 유대교 출신 크로니쉬 목사

의 심경에 대해 그는 “은혜가 저할 수 없을 정도로 물려왔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아내와 동시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그리고 5년

‘빛을 발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그곳에서 예배와 성경공부, 기도와 친교 등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영어교육을 선호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모세오경 등의 구약성경을 영어로 교육하고

미국에서만 지냈던 그가 메시야니즘(Messianic Jew: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의 비율이 0.002%에 불과한 이스라엘로 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내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www.easy2424.com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 LTK-1600WIDE ▲

● LED 확대경 램프 ▲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네이비스 (310) 326-6666 /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 2605 S. Santa Fe Ave. / Vernon, CA 90058

CBMC LA 대회 폐막, “복음 들고 세상으로”



북미주 한인 CBMC의 최대 축제, 제 16차 북미주 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LA Westin LAX Hote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북미주 한인 CBMC의 최대 축제, 제 16차 북미주 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LA Westin LAX Hotel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이번 대회는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십'이란 주제를 갖고 북미주 CBMC 총 연합회에서 주관, 남미주 CBMC 연합회에서 주최했으며, 북미주 CBMC 전 회원들이 모이는 축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

사람이었다.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지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가난한 자, 마음에 빛진 자 등 600명 정도가 다윗을 좇아다녔는데 나중에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며

내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600명 모두의 승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우산을 쓰고 있으면 물을 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회 안

과 B형이 조합된 AB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윗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다. 그러나 다윗은 훌륭한 영성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직장,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로 그리

3일간 일정 폐막...민중기 목사 “다윗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모임에는 북미주와 한국과 중국, 아시아와 유럽 CBMC 회원들이 참석했다. 첫날 저녁에 주제 특강에서 말씀을 전한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는 “다윗의 비상경영(삼상30:1-20) 제하에 강의를 펼쳤다. 민 목사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위기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고 폐하에서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목사는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는 시각을 바꿔 결국 승리를 얻어

에서 봉사 잘하는 것 중요하다. 그것과 함께 세속적 자리에서, 정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세 타입의 크리스천이 있다. A형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B형은 직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천은 A형

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는 간증 및 워크샵, 지회소개, 해외사역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신승훈 목사, 이종용 목사, 노진준 목사, 이철 목사, 강석희 시장(여남인) 등이 강사로 나섰다.

토마스 맹기자

스티븐 호킹의 ‘하나님 없는 우주’에 대한 비판적 소고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여 메스컴과 교계의 파문을 일으킨 스티븐 호킹(1942-)과 레오나르도 블로디노프(미 캘리포니아 공과대 물리학)의 공저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가 최근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나왔다.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은 영국의 이론물리학자이다. 즉 관측과 실험을 요구하는 학

자가 아니다. 단지 이론과 수학으로 우주를 바라본다. 호킹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지 못하고 늘 논란이 많은 것도 이런 이론물리학자의 특성이 반영된 점이 있다.

호킹은 1959년 영국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물리학 문제는 어떤 것이든 계산하기도 전에 풀어버렸다”고 호킹의 지도교수가 회고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뛰어난 두뇌를 가진 수재였음이 분

명하다. 그의 아버지도 과학자였다. 아버지가 영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열대병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였으니 과학적 재능은 일찍 타고난 듯하다. 이 모든 배경이 그의 육체적 장애와 더불어 호킹의 명성을 크게 높이는 상승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호킹은 사실 이미 과거에도 그가 믿는 신이란 정통적 신개념이 아닌 을 늘 말하고 있었다. 즉 호킹이 불신자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운통 언론이 다시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다음은 아니다. 10년 만에 그의 책이 출간되었다. 출판사의 목표란 신(神)이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책이 계획만큼 많이 팔려야 한다. 출판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끄집어내어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출판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관측과 실험이 불가능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물리학자의 주장만 독자들에게 관심도 덜하고 조금 신선감이 떨어진다. 우주물리학적 교양도서라는 것은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수많은 대학자들의 책도 팔리지 않는다.

호킹은 1987년 출간된 자신의 책 서문에서 스스로 누군가 자기에게 “당신이 책에서 방정식 하나 사용할 때마다 책 매장이 절반씩 줄어들 거라”고 충고했다는 에피소드는 과학 도서를 팔기 위한 치열한 고심의 흔

적을 보여준다. 이런 고민을 뚫고 무엇든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호기심을 불러넣어야 한다. 호킹이 장애를 가진 의지의 과학자라는 것도 세상에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좀 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레토릭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종교와 과학의 시대이다. 탁월한 장애인 과학자가 신이 없다고 외치는 것은 영원히 리바이벌해서 써먹을 만한 주제이다. 이미 그것은 호킹과 같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한 살 차이인 리처드 도킨스(1941-)가 여러 번 활용하여 그 파급력을 확인한 바 있다. 필자가 볼 때 이번 일은 조금 유치하게 보인다. 호킹은 출판사 판매량 제고를 위한 슬픈 언론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겨우 자신의 작은 머리와 이론물리학을 가지도 못한 신(神)의 틈새를 때꾸려는 노학자의 애쓰는 모습이란 얼마나 안쓰럽고 처량한가? 하지만 출판사는 지금 패재(狹策)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이 책은 10월 7일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단번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호킹은 ?시간의 역사?를 쓸 때에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신(神)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탐구하는 듯한 레토릭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신에 대한 반감과 강한 부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대단히 전투적인



조동영 박사의 창조신학

무신론자이다. 그의 논지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단순하지 않다. 오랜 시간 치열하고 집요하게 무신론을 주장하여 왔다. 그에 비하면 사실 호킹은 훨씬 소박한(?) 무신론자이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무신론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조금 알려진 과학자요 장애를 가진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더 끄는 과학자일 뿐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론물리학 자체가 늘 잠정적이므로 무신론 과학자로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더구나 난해해도 그 주장을 증거하거나 반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호킹도 사람이다.

스티븐 호킹, 그도 황당한 실수를 하는 사람일 뿐이다

호킹은 1985년 “우주가 수축하게 되면 시간의 화살도 반전(反轉)한다”는 아주 과감한 주장을 폈다. 물론 호킹의 실수였다. 일본을 여러 번 방문한 호킹이 첫 방문 때 교토(京都)에

서 열린 ‘양자 중력과 우주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우주가 수축할 때에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은 반전한다”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주장이었다. 시간이 정말 거꾸로 갈 수 있을까? 노인이 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되돌아가서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나 아쉬운 것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떨어진 대학, 불합격한 입사 시험, 빚나간 탈선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통신자로 다 망가져버린 자동차가 다시 조립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리 될 수 없다. 이것은 나중 호킹 스스로 인정한 ‘큰 실수’였다. 호킹의 주장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아는 상식의 공학도나 물리학도라면 어안이 병병해지는 괴이한 억지 주장이었던 것이다. 호킹도 당연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실수를 할 줄 아는 한 명의 과학자일 뿐이다.

사람들과 언론은 일개 과학자의 주장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다. 과학자도 일종의 미디어 스타가 되기 오래이다. 우리는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에서 이미 그 패턴을 확인하여 왔지 않은가! 이번에도 나쁜 책은 무슨 대단한 논문이 아니다. 우주를 설명하는 단순한 교양 과학 도서이다. 노벨상 수상자도 아닌 검증되지 않고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된 과학자가 주장한 책을 누가 사볼까?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무료취업 교육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 취업 전문대학 알선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상담: 플라워 박

1. 메디칼 오피스 매니저먼트 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 보조, 약사 보조, 치과기공, 미술, 미용
2. 비즈니스 매니저먼트 학사취득,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디지털미디어
3. 유학생 F-20 발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4. 유학생은 취업전문대학 졸업 후 워크퍼밋,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줌

크리스천 교육 직업상담센터
Tel. (213) 434-8128

2706 Wilshire Boulevard #100, Los Angeles, CA 90057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맹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초청 찬양집회

한국의 많은 찬양사역자들을 배출해 낸 찬양의 요람!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LA에 옵니다.

일시: 10월 22일 오후 7시
장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본당

'은혜아니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곡들을 부른 컨티넨탈 싱어즈!
찬양의 열정과 뜨거운 기쁨이 있는 집회에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소: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el: 626. 912. 6600 Fax: 626.912.0303
www.hanarochurch.org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 개최



통일을 준비하는 푸른나무 뉴 코리아 문화복지공동체 미주본부가 10일 오후 4시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발대식은 개회예배, 환영사, 푸른나무 소개 및 축사, 푸른나무 미주본부 장 위촉, 카마 어린이 합창단 축사

“한인 디아스포라가 협력해 큰 일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상철 목사(이민신학연구소 소장)가 푸른나무 미주 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이 단체는 2012년 계획 사업으로 평양 대동강 지역에 장애인 종합회복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허가

북한 어린이들과 1:1 자매결연 추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민중기 목사는 “푸른나무가 풍성해져서 LA에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광 푸른나무 대표는 “전 세계가 손잡고 북한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일에 힘써야 한

부지를 배정받아 건축기본설계를 마쳤으며 건축기금 30억을 모금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북한 물품 지원, 북한 장애인 복지 등을 후원해온 이 단체는 많은 NGO 단체들이 외국 어린이들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어린이들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

고조로 대북지원이 어려웠던 2010년도 해외 기관과 동포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북쪽에 후원물품을 지원했었고, 북한의 장애인 보호연맹과 협의해 북한에 있는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의 올림픽 참가를 후원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ABC 교육위원 우수연 후보 “주의 일 한다는 생각”

ABC 교육위원에 출마를 선언한 현재 선거활동에 한창인 한인이 있어 화제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중인 ABC 통합교육구에 2년 임기의 교육위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한인 1.5세 우수연(게이트웨이 학원 원장)씨는 1.5세 목회자 유성권 목사(뉴라이프 미션처치)의 사모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ABC통합교육구는 교육위원 7개 의석 중에서 5석(4석:4년 임기, 1석:2년 임기)을 새로 선출한다. 유 후보는 신디 앤첸(교육가), 맨수어 메이사미, 린다 존슨 등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ABC통합교육구는 세리토스, 아티샤, 녹윌, 하와이안 가든, 레이우드, 롱비치를 관할하는 교육구로서 미주에서 가장 우수한 공립고등학교 그룹에 속한 위트니 고교가 포함돼있다. 이 교육구의 전체 학생 중 10%가 한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난 10일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유 후보는 한인들의 우편투표의 중요성을 본지와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한인들은 전통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보다는 우편투표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일은 11월8일이다. 유 후보의 남편인 유상권 목사는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려



Soo Yoo(유수연 후보)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

한인들에게 우편투표 당부...선거일은 11월8일

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선거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는 우수연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최근 7~8년 사이에 청소년 문화가 영적으로 극히 어두워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부모들은 너무 막연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원에서 16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는 것은 아이들이 집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전자 문화에

컨트롤되고 매여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공립학교도 선생님 하나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선생 자질의 문제가 많고 공립학교 시스템도 문제가 많다. 저는 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연합으로 돼있는 클럽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다. 제가 7~8년 전서부터 시의원들로부터 출마 지지를 받았는데, 부담이 되어 출마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상에서 에너지 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제가 신학대를 나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학원은 사이드 비즈니스이고 사역이 항상 최우선이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더 이상 해외 선교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감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교육위원이 되면 하는 일은 무엇

인가.

“교육구 전체를 관찰하고 프로그램 총괄하고 교육 정책 만드는 자리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반영하고 싶은 것이다. 하루에 5시간 동안 선거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를 한다. 이는 미국이 많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방향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학부모들 교육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다. 한인학생들을 위해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최우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돕고 싶다”

-이번에 한인사회에서 SB48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동성애를 왜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하지는 모르겠다. 동성애 교육이 패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몰드는 것이다. 아이버리 그에 간 많은 2세대들이 생각에 도덕성이 없다. 자유신학자제가 문제다” 문의 : 562-802-4655(유수연 후보 선거본부)

토마스 맹 기자



해피데이...그날 위해 모인 성도들

선한목자장로교회, 은혜의문 수양회 개최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오는 11월에 있을 해피데이(비신자 전도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모인인 은혜의 문 수양회를 9일 오후에 본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김한옥 목사(새안양교회)가 나선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집회에 참여했다. 김한옥 목사는 방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언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방언은 영적인 기도이고 성령의 역사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예수 십자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환시켜 내신다. 인생을 돕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만나야 한다”며 “생각의 최선봉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경험과 과학보다 말씀이 앞서야 한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료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LOS ANGELES ORT COLLEGE 135년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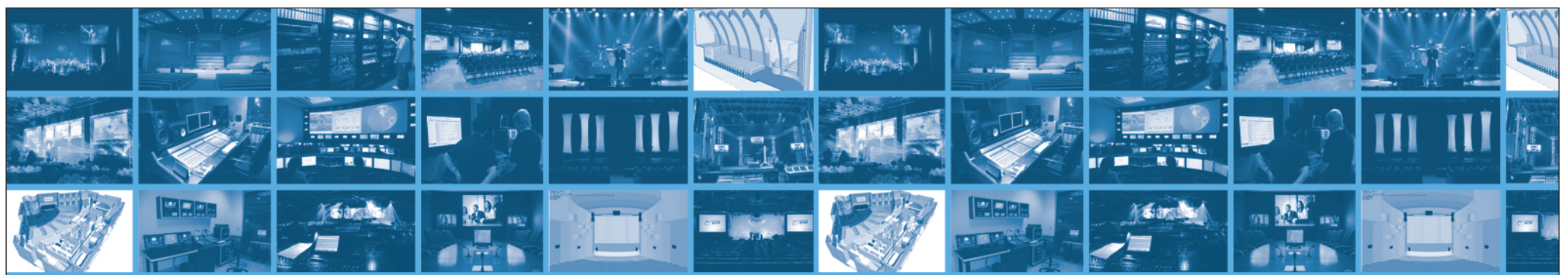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지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 자격증 보조금 지급 |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높은 소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의사보조
2.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어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20일급,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 ORT졸업후 워크퍼밋, 소생비호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줌

대표전화 (323) 966-5444 / Cell. (213) 703-6863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사+La Jolla, 버스20번) 상담 그레이스 (Grace)



음향·영상·조명 무료 세미나

추지 음향, 영상, 조명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실제 교회 미디어 사역에 활용 되어지는 사례들과 질문들을 통해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사역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특징 - 음향, 영상, 조명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제 필요한 예제 및 실습을 통한 알기쉬운 세미나.
- 미주 한인 교회의 상황과 특성을 잘 이해하며 이에 적합한 미디어 활용팁 제시.

대상 - 미디어 담당 사역자가 부재한 작은교회 교역자
- 보다 전문적인 미디어교육을 원하는 평신도 사역자

문의전화 (213) 327-7182, (213) 718-1512

일시: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시간: 오후 3시 ~ 오후 5시

장소: Laservision World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강사: Audio Nathan Kim
Visual & Lighting Justin Lee : Laervision World

주최: 기독일보

주관: LASERVISION WORLD

후원: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 기독교 한인 목사회, 복음방송



“보수 진보 신학의 주제들, ‘양자택일’ 아니다”

호킹과 논쟁 벌였던 필립 클레이튼 학장 방한

미국 클레이튼신학대학원 필립 클레이튼(Philip Clayton) 학장이 12일 서울 수유동 한신대 신대원에서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학의 변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필립 클레이튼 학장은 영국의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이를 지지하자, "도킨스는 호킹의 발언을 종교의 최대 라이벌로 과학을 규정하는 데 이용할 것이고, 그에 대한 답례로 종교인들은 종교의 이름

으로 과학의 죽음을 선언할 것"이라며 논쟁을 벌여 화제가 됐다.

이날 강연에서 클레이튼 학장은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것과, 이를 위해 타 종교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클레이튼 학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개인의 구원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변화된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가치를 반영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독교 신학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

지만, 기독교·성령론·교회론 안의 핵심 주제들은 '양자 모두'의 문제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가지고 권력에 대항하여 진리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 "보수와 진보는 삼위일체 그리스도론, 우주적 그리스도론, 케노타 그리스도론(하나님의 자기비움) 등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며 "서로 논쟁하며 저주할 것이 아니라, 결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기독교인

들이 종교다원주의 세계 속에 복음의 한 면만을 제시한다면 혼동만을 창출하게 된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레이튼 학장은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방한 일정 동안 '기독교 신학의 변혁'에 대해 계속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생명평화마당과 클레이튼신학교 동문회가 주최하고 있다.

신대진 기자

이란 나다르카니 목사 사형 집행 여부 곧 결정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검토 남아



사형 선고를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Yousef Nadarkhani) 목사가 아직 살아 있지만, 이슬람 최고 성직자로서 최고 국가 지도자인 대(大)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지시에 따라 사형 집행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2009년 비무슬림 아이들도 코란 읽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당국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2010년에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다른 무슬림들도 개종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에도 나다르카니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올해 7월에는 고등법원으로부터 다시 사형 선고를 확인 받았으며, 지난 2주간 판결의 재검토 기간 동안에도 나다르카니 목사는 또다시 회개와 재개종을 강요당했으나 역시 이를 거부했다. 한편 고등법원은 마지막으로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대(大)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결정을 묻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CNN은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사를 인용해 전했다.

이란에서는 배교 행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많으나 국제사회 압박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많지 않다. 만약 사형이 집행될 시 이는 배교자에 대한 20년 만의 첫 사형 집행으로 남게 된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이란 내에서 작은 교회를 이끌며 가정교회 운동을 펼쳐 왔다. 그는 배교 행위에 대해 부인하며, 한 번도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제 기독교 인권 단체들은 나다르카니 목사 사형 취소를 위해 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도 미래목회포럼 등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그에게 감감 등 다른 혐의가 있다는 거짓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순현정 기자

나성영락교회 2011 나눔축제 개최

LA 강 환경정화, 재활용센터 돕기 위해 마련

나성영락교회(담임 립형천 목사)에서 2011 나눔축제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물품 및 스낵코너 마련된 가운데 주말에 많은 교우들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나눔축제는 영락교회에서

리빙하이츠 지역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에는 LA 강 환경정화, 재활용센터, 그 외의 녹색환경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토마스 맵 기자



제2회 미주 찬송가 페스티벌 및 교회음악 공로자 시상식 열려

제2회 미주 찬송가 페스티벌 및 교회 음악공로자 시상식이 지난 6일 저녁에 일산 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미주 찬송가 공회가 주최하고 크리스천 뉴스위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주회는 경신코랄로 시작해 모

두 10개의 찬양단이 출연했다. 참가팀은 LA 남성선교회합창단, 셋별선교회합창단, 필그림 선교교회 찬양단, 미주 여성교향 합창단, LA 여성선교회합창단, 한 아름 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랐다.

토마스 맵 기자



▶ 1면에 이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광야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까, 라는 것의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방 문화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다. 모세를 통한 커리큘럼, 신명기를 통해 법례를 배우게 하면서 조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혁해 나갔다. 아이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주지 않으니 대학에 가서 어떻게 견뎌냈는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 요셉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 그 사회에 모순이 보인다.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

는 모순이 된다. 마틴루터킹은 대통령이 아니면서 처음으로 워싱턴DC에 자신의 기념물이 세워진 인물이다. 그는 자랄 때부터 흑인교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백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깊은 모순을 보며 비폭력의 싸움을 한 사람이다. 우리 2세들에게 코리안인의 정체성과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개교회하고 신학의 싱크탱크가 힘을 합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고 했다.

둘째 날 이민목회 리더십 사례를 중

심으로 한 주제를 갖고 열린 패널 디스커션에 참가한 1.5세 사역자 박영은 목사(동양선교교회)는 "1세대가 가르친 것은 영성을 가르치기 보다는 성경을 가르쳤다. 2세대가 지나가서 영적으로 볼 때 지옥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며 "1세 교회가 건강해야지 다음 교회에 찬스가 있다. 텍사스에 가서 목회를 할 때 1세들의 정서를 배우게 됐다. 다시 LA의 동양선교교회에 오면서 어려움이 있는 교회라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 내가 가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며,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 믿

음으로 온 결과 현재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온 목적이 자녀들을 위해 왔다고 하는데 2세 목회,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었다는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다. 사사기2 장10절에 보면 다음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나와 있듯이 한 세대만 건너뛰면 이민교회는 죽는다"고 말했다. 또 패널로 참여한 임윤택 박사(사립리얼리티 대학 정교수)는 "이민교회 리더십을 기르고 리더십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멘토링 방법론이 필요하다.故 팔프윈터 박사가 가르친 멘토링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팔프윈터 박사 멘토링 모델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학문적인 수준이 높은 부분이 많은 데 최근 분위기는 학문적인 것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나라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박사과정을 지도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민목회에 적용한다면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리더들을 기르고 싶다.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을 멘토링 하는 것처럼 2세 사역지에서 2세 사역자를 멘토링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토마스 맵 기자

폴 선 에이전트(수호천사보험)

“어르신들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문 보험회사인 '수호천사보험'이 메디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 신청을 돕고 있다.



폴 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는 메디케어 A·B 수혜자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7월 이후부터 중단돼 받을 수 없었던 메디칼로 불리는 메디케어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치과진료부터 한방침술, 안경, 척추교정장치 및 가정방문 간호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가입자에겐 유명 피트니스의 연간회원권과 약국 및 병원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 HMO 플랜은 건강보험회사별로 혜택이 가지각색이지만 한인들은 메디케어 파트D 나 별도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디덕터블도 없는 플랜을 선호하고 있다. 수호천사보험의 폴 선 시니어 전문 플래너는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수십개의 건강보험 회사가 경쟁적으로 각기 다른 혜택의 HMO를 제공하고 있다"며 "회사마다 혜택과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미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40분기 이상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 65세 이상 연장자가 받을 수 있으며 택스 보고 기간 부족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

면 된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용의 약 80%만 제공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의료비는 본인 부담하거나 보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많은 노인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추가비용 없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호천사보험의 폴 선 에이전트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가로 많은 한인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에 메디케어 및 어드밴티지 HMO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

그는 "지금의 미 의료시스템을 살펴보면 완전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한인 노인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지만 돈 한푼 받지 않아도 한인 노인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일할수록 신이 난다"고 말했다.


▶문의: 213) 503-6897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 현대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융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을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우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바랍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미국장로교, 헌법 개정 후 첫 동성애자 목사 임명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을 허용한 이래 첫 임명 사례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스캇 앤더슨 목사의 임직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프린스턴대학 출신의 앤더슨 목사는 졸업 후 지역 장로교회 교역자로 사역해 왔으나 교인들에 의해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지면서 사역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는 지난 5월 PCUSA가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을 허용한 데 따

라 PCUSA 내 첫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다. 지난 7월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을 허용한 개헌안이 발효한지 약 3개월 만이다. PCUSA는 그동안 헌법 가운데 "목사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또는 혼전 순결을 유

지해야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은 성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앞선 5월, 173개 노회 중 6반수에 해당하는 87번째 노회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찬성을 표한 것으로, 작년 7월 총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이 최종으로 승인되기에 이르

렀다. 한편 앤더슨 목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PCUSA 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성직 임명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앤더슨 목사의 목사 임명 소식을 접한 PCUSA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온라인상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대조를 이루, 동성애자 성직 임명 허용 이전과 다름없이 이 문제가 PCUSA 내에서 풀리지 않는 논란을 자아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순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대형교회 목회자들 사람 많아도 더 외로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지난 주 초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나는 쉽게 좌절감에 빠진다", "목회 사역에서 때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에 동의했다. 목회 사역에서 오는 외로움은 연령층이 젊을수록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의 목회자들의 30%가 '사역을 하며 상심을 경험한다'는 표현에 강한 부정을 했으나, 55세에서 64세 목회자(19%), 45세에서 54세 목회자(13%), 18세에서 44세 목회자(1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상심을 경험한다'는 표현에 대한 부정하는 비율이 줄어든 데서 유추할 수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형교회 목회자(교인

수 250명 이상)일수록 외로움을 더 잘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는 17%만이 '사역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표현에 강한 부정 의사를 나타냈다"며 "교인수가 50명 미만인 교회 목회자의 32%가, 100명에서 250명 미만의 교회 목회자 중 27%가 강한 부정을 나타낸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에드 스텝처 부회장은 "목회에서 경험하는 상심은 목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소비적 기독교인들(consumerist Christian mindset)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도자는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다. 교회에는 손님보다 더 많은 협력자들(co-laborers)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나라 기자

“물론교인에게 투표? 보수 기독교인에게 해야”

美 대선 앞두고 유력 후보들 종교 논쟁

미국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미트 롬니와 리크 페리를 두고 교계에 종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교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듯하다. 미국 대선에 있어서 복음주의권의 영향력이 심히 지대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종교 역시도 복음주의권의 중대한 관심사 중 하나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 현 대통령인 오바마까지 개신교인이 아닌 대통령

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롬니의 종교가 물론교란 점에서 교계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또다른 유력 후보인 리크 페리는 강력한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교회로 꼽히는 레이쿠우드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는 "대통령 후보가 물론교인이란 해도 그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의견을 CNN에 출연해 내놓았다. 그는 후보가 무슬림이거나 유대교인이란 해도 투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조엘 오스틴의 이 발언이 보도된 이후, 곧 텍사스 지역의 영향력 있는 한 침례교회 목회자가 "물론은 이단이며 롬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역은 리크 페리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다.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조엘 오스틴의 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크리스천 표를 크리스천에게 집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벨뷰보터서미탄 정치집회에서 페리를 소개한 직후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물론은 주

류 기독교에 의해 단 한 번도 기독교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이단"이라며 "롬니는 물론교인이므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롬니가 좋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그것이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진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인인 오바마 대통령의 친동생에 친남매 정책 등에도 강한 반대를 드러내며 "재선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페리는 보수적 견해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영선 기자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좌)와 조엘 오스틴 목사(우)

이란 개종자들, 해외도피 후에도 살해 협박 여전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해외로 벗어나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이란 당국의 감시 강화로 인해 해외로 이주한 11명의 이란인 개종자들이 그동안 정체불명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숨겨진 이맘의 미지의 군사들(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로 자신들을 명명한 이들은 개종자들에게 "알라를 버린 것을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죽임 당할 것인지 택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과 함께였다. CSW는 아마도 정체불명의 이들은 이란 개종자들을 감시해 온 당국과 연계된 세력일 것이라고 보고

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회유에 응하지 않을 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CSW는 우려를 표했다. 한 예로, 현재 사형을 선고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역시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작년 9월 배교죄로 기소되었으며, 제대로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사형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계속되는 재개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거부해 왔다. CSW는 "해의 이란인 개종자들에게 대한 이란 당국과 관련 세력들의 끈질기고 혹독한 박해에 대해, 이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현정 기자

“할로윈은 악마의 밤” VS “전도 기회 활용해야”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교회들이 멀리해 왔던 할로윈(Halloween)을 전도에 활용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할로윈은 켈트족 문화와 가톨릭의 만성절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날이다. 매년 만성절(11월 1일) 전날인 10월 31일에는 죽은 영혼이 내려온다는 믿음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령 복장을 하고 집을 무섭게 꾸민 켈트족 풍습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는 이교적 풍습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마귀·악마 등으로 분장해 거리를 다니는 등의 현상이 매년 나타난다는 점에서 많은 교회들은 할로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할로윈을 피하거나 금지하는 식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으로

써 이 날을 전도에 활용하는 단체와 교회들도 있다. '지저스 윈(Jesus Ween)'이라는 선교단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할로윈 기간 집중 전도를 위해 시작된 단체다. 이들은 아이들이 할로윈이 되면 유령 복장을 입고 집집마다 돌며 "Trick or treat(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을 나눠 주며 전도를 하고 있다. 대표인 폴(Paul)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할로윈 기간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며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저스 윈은 할로윈에 유령이나 마

녀 복장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과자를 요구하는 대신 성경책이나 전도책자를 선물하며 복음을 짧게라도 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할로윈 날 전도를 하거나 이외에도 지역 주민 축제를 열어 할로윈 문화 대신 기독교 문화를 함께 나누는

에서는 CBN CEO이자 진행자인 펠로버튼(Robertson) 목사가 교회의 할로윈 행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한 시청자의 사연에 "할로윈은 사탄의 밤, 악마의 밤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마냥 피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전파의 호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견해다. 지저스 윈의 폴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이 우리의 신앙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날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미국 교회들 사이에서 대안적 활동 늘어

날로 정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을 교회가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의 간판 프로그램인 일일 뉴스 토크쇼 'The 700 Club'

이집트, 무슬림 폭도들이 교회 불태워

이집트의 아스완(Aswan)주(州)에 있는 엘마리나(Elmarinab) 마을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 폭도들이 교회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 폭도들이 공격한 교회는 성 조지(St. George) 캠프 교회로서, 이 교회는 건물의 대부분을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었다. 목격자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 금요일 무슬림 금요기도 시간이 끝난 후 무슬림들이 교회로 몰려가 교회의 돔 모양의 지붕과 벽 그리고 기둥을 파괴하고 교회 건축을 위한 목재들이 저장된 창고에 불을 질렀

다. 또한 폭도들은 교회의 기둥을 파괴하고 주위에 있는 가계와 기독교인 주택 4채도 불을 질렀는데, 폭도들이 방화한 불길은 2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폭도들은 저녁 7시까지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폭도들은 심지어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였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 보안 요원들은 폭동을 막으려 하지 않고 구경만 할 뿐이었다고 성 조지 교회의 동을 파괴하고 교회 건축을 위한 목재들이 저장된 창고에 불을 질렀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특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제18기 훈련생 모집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훈련원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간 : 2011년 10월 24일(월)~2012년 1월 11일(수) 주 3회 (A:월,화,수 B:토,일) 12주 ◆ 훈련시간 : 오전 10:00~11:40 / 저녁 7:30~9:10 토요일: 오전9:00~오후1:30 ◆ 무료설명회 : 2011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 훈련장소 : LA 베스트 영어훈련원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67+뉴해프너) ◆ 등록비 :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 접수 : 설명회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간 : 2011년 10월 25일(화)~2012년 1월 14일(토) 주 3회 (A:월,화,수 B:토,일) 12주 ◆ 훈련시간 : 오전 10:00~11:40 / 저녁 7:30~9:10 토요일: 오전9:00~오후1:30 ◆ 무료설명회 : 2011년 10월 22일(토)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 훈련장소 :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브룩헤르스트와 유클리드 사이, 은혜한인교회에서 동쪽으로 400M) ◆ 등록비 :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 접수 : 설명회 당일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 뉴욕 한국인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 격찬
 뉴욕 맨해튼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가 직접 참석을 통해 확인/LA 다양한 계층 훈련후 찬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수개월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식 방식으로 대안
- ▶ 음성화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중첩반복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약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강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말을 한다.

3년 과정을 3개월에 끝내는 베스트 훈련원의 약점 9가지

1. 분석하지 말 것. 단순히 트레이닝 하라.
2. 공부하지 말 것. 훈련하라!
3. 책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 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4.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 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5. 모르는 것은 낯선 것일뿐, 낯을 익혀 익숙해져라!
6.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7.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 것,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8. 이메일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끝없는 검증증을 가져라!
9. 하늘보다 더 많은 연습을... 서슴치 영어를 하라!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특희 저자 영어훈련소(김영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7신 최종] 뉴욕교협 실행위 조용히 폐회

윤리위 보고, 불법감사 보고 없이 종료 때

12일 진행된 교협 실행위원회에서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윤리위원회 보고'와 '불법 감사와 선관위 관계 특별보고', '불법감사에 대한 특별조사 5인위원 선정' 등은 이후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원기 회장은 '윤리위원회 보고'와 '불법 감사와 선관위 관계 특별보고'에 대해 실행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총회로 바로 보고하는 내용이기에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별도로 발표하기로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감사에 대한 특별조사 5인위원 선정'과 관련, 김원기 목사는 정기총회 전까지 복잡한 사안들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위원회 구성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문제가 혹시 장기화 될까 염려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를 일단 현 집행부에서 5인으로 임명한 상황"이라며 "총회에서 잘 마무리된다면 이 조사위원회는 할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총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차기 회기에 계속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미진안건 없이 김 회장의 기도로 폐회했다.

[6신] 교계 언론매체 인터넷 댓글 실명제 촉구키로

12일 진행된 교협 실행위원회에서 교계매체의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해 건전한 댓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총회차원에서 언론과의 협약을 맺도록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인터넷 댓글 중 비방과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많아 이로 인해 교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상처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5신] 청소년센터 통합안건 총회상정키로

한재홍 목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 진행되고 있어" 현재 양분화된 교협내 청소년센터에 대한 총회적인 차원의 통합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진행된 교협 실행위원회에서 청소년 센터의 통합문제를 38회기 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원기 회장은 "청소년센터 문제를 오랫동안 관철을 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AYC와 KYC라는 두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더 이상 지지부진 끌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돼서 다음 38회기에 1년 안에 총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하는 결의안을 집행부가 상정을 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소년센터와 관련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한재홍 증경회장은 "청소년센터가 씨사이드에서 건물을 사고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Korean으로는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Asian으로 하라는 정부측의 이야기가 있어 총회에서 AYC로 한다는 것이 보고됐고 결의한 것"이라며 "정식 단체는 AYC지만 KYC도 학원사역에 있어서 세금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 목사는 "청소년센터가 이원화돼 왔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마무리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총회 전에 양측의 합의를 끝내려고 했지만 양쪽 이사회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 통합에 관련한 합의는 잘 진행돼 가고 있다. 기도해 달라. 새로운 사무총장이 왔는데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잘 포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4신] 선거세칙 통과돼...회장 임후보시 2천불 내야

12일 교협 실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시행세칙이 통과됐다. 통과된 내용 중에는 사전선거등록제도, 임후보자 등록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 이전과 달리 추가돼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김원기 회장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이 그동안 여러차례 검토를 통해 문안을 작성한 것이라는데 이해를 구하고 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략한 자구수정 외에 특별한 이견 없이 선거관리 시행세칙이 통과됐으며,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 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된 시행세칙에는 정.부회장 후보자 등록금이 2천불로 규정돼 있다. 또 감사 임후보자도 1천불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한편 2년 전 가입 서류와 가입비를 제출했으나 총회장에 불참해 회원 가입 처리가 되지 않았던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일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임원회에서는 가입 서류를 검토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신] 감사보고 미진사안으로 처리

12일 교협 실행위원회에서 감사보고와 관련, 집행부가 감사보고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감사보고 순서를 생략했다.

이는 앞서 감사들이 발표한 감사보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된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불법 감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나와있다.

[2신] 김원기 회장 인사말에서 계파싸움에 대해 부인

12일 행복한교회에서 진행된 교협 제4차 실행위원회에서 김원기 회장은 앞서 최웅렬 증경회장의 설교를 의식한 듯 교협내의 싸움은 많이 와전된 것이라며 계파싸움이라는 외부적 비판에 대해 부인했다.

김원기 회장은 "회기 마지막 실행위를 시작하면서 소신을 말하지만 금년 회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와전돼 전달된 소식들이 많다"며 "첫째 무슨 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었다. 회의를 보거나 회무를 진행할 때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도 최웅렬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교협에 관계해 왔지만 우리 회기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다"며 "다만 있었던 것은 치열한 논쟁이다. 그것은 회무를 진행하는 과정상에 일어난 일이지 그것이 절대 싸움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계파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며 "제가 바울에 소속돼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많이 있을 뿐 그런 계파를 갖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들"이라고 단언했다.



제37회기 제4차 실행위원회가 행복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 회장은 "다만 저는 이번 회기를 할 수 있는대로 교협의 회칙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제 소신"이라며 "때문에 교협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사전등록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협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제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 지금까지 소신은 회칙과 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모두 다 언론에 회의를 공개했고,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모든 모습이 나가니까 싸움하는 줄 아는데 절대 싸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명 부회장과 관련해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이종명 목사님과는 회기 초에 작은 언쟁은 두어번 있었다"며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식으로 이종명 목사님에게 사과 이메일도 보냈었다.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언쟁도 없었다. 불화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교협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해나가 나가 다루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다"며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1신] 최웅렬 증경회장 "양측 너무 팽팽히 맞서있다"

뉴욕교협 제4차 실행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행복한교회(이성현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1부 예배에서 설교

를 전한 최웅렬 목사(증경회장)는 뉴욕교협의 현 상황에 대해 "가장 극심한 파벌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뉴욕교협이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웅렬 목사는 "지금까지 교협 내에 논란이 세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때와 달리 너무도 팽팽히 맞서 있다"며 "우리가 목회자들이고 세상이 지켜보는데 모든 것이 잘 끝나야 되지 언론에 오르내리면 하나님 영광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웅렬 목사는 "교협의 목적은 교단을 초월해 서로 기도로 돕고 화해로서 하는 것이지 파벌을 만들어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열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최웅렬 목사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신다"며 "오직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실행위원회 안건 중에는 감사보고, 회칙변경, 윤리위원회 보고 등이 있으며 현역감 선관위원장 대행이 '불법 감사와 선관위 관계 특별 보고'를 한다.

특히 불법감사에 대한 특별조사 5인위원 선정의 건이 총회보고 안건으로 나와 있다. 위원을 현역감, 허윤준, 박태규, 최운태, 김연규 목사 등으로 구성, 3개월 이내 조사보고서를 총회적으로 서면보고한다는 내용이다.

김대원 기자
dwkim@chdaily.com

뉴욕계명장로교회 황경일 목사 노년서 첫 이전예배

'여호와를 힘 입고 용기를 얻음' 이란 제목으로 설교

뉴욕계명장로교회(황경일 목사)가 9일 오전 11시 노년에서 첫 이전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사모를 위해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던 뉴욕계명장로교회는 이날 예배를 통해 교회의 선교영역을 본격적으로 넓혀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첫 예배에는 뉴욕계명장로교회 성도들이 모두 출석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랫동안 병석에서만 예배를 드려왔던 사모도 이날은 교회 성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황경일 목사는 '여호와를 힘 입고 용기를 얻음'(삼상 30:1-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모든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며 "먼저 가난한 이를 위해 돕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신다"고 강조했다.

황경일 목사는 "큰 교회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신다"며 "

우리교회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경일 목사는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큰 꿈을 갖고 정치와 경제 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등용돼 쓰임 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뉴욕계명장로교회는 예배 후 성도들의 헌물로 마련된 식사로 전교를 나눴다. 뉴욕계명장로교회 새 예배장소 주소는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이다.



황경일 목사.

김대원 기자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뒀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창립33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1)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2) 이민 목회 경력이 3년 이상된 목사(부교역자 경력포함)
- 3)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하신 분
- 4) 연령은 39세 - 45세 사이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본인 및 가족사진
- 3) 목회 비전서
- 4) 목사 안수증명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 6) 목사 2인 추천서
- 7) 최근 설교 2편(CD)

제출기한: 2011년 11월 4일(금)까지

제출하실 곳: 청빙위원회 앞
1821 Alta Vista Place, Camarillo, CA, 93012
혹은 E-Mail : ahnfamily1821@aol.com

문의: 임진태목사 (805)816-2373

HTTP://WWW.VCKPC.COM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인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0-30뿌리	\$1,200/LB
		2호:15-22그램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33-60뿌리	\$900/LB
		4호:5-8그램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80-120뿌리	\$6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1년 9월 8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총전무게
\$600	25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90그램	12뿌리-15뿌리	평균 20-30년근	70그램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타 업체보다 5~10배 싼 가격

펜실베이니아주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 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 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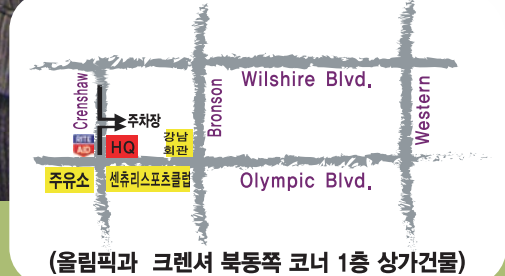
한국에는 매회 300그램까지 합법적인 면세품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미국산삼이 이곳보다 약50배 가량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주 전 지역 무료 배송
LA, 오렌지카운티 무료 배달



전속모델 탤런트 한인수

안전한 인터넷쇼핑몰: www.KBSmall.com



\$200 / 소매가 \$1,000
70그램 90그램 / 20~35년근 20~25 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40~50년근 15~20 뿌리

- #### 단골 구매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
1. 고객님의 택으로 보내드린 구pon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모든 제품의 산삼 구매시 구매 상품의 산삼을 해당되는 퍼센트로 무료로 더 드립니다.
 2.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부작용 없는 최고급 염색약 명호초치 마님 (박스당 22봉)을 산삼 구매가의 10%에 해당되는 만큼 보너스로 드립니다.
 3. 700볼 시판가의 정수 능력 순도 100%인 최고급 역삼투 정수기(자사개발-최초 6개 필터 장착)를 대당 원가인 \$249에 공급해 드립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365-2100
O.C.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1am-5pm

정체되지 않는 교회 8가정에서 400명 된 원동력은

메시아장로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제 5회 메시아잔치



2일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메시아교회 교인들이 손을 뻗어 축복하고 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짝 펴고 서로를 마주본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이다 괜히 '피식' 웃음이 터진다. 낯설은 얼굴들이 많았다. 좋은 징조다.

교회에 새신자의 발길이 끊길 때 교회는 정체되고 내부 혼란이 찾아온다. 정체되지 않기 위해 5년 전부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가 지난 10월 2일과 9일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교회 창립 22주년이기도 하지만 새신자를 초청하기 위해 교인 전체가 총력 전도한 열매가 맺히는 날이기 때문이다. 5년 전 한세영 목사가 부임한 해부터 시작된 '메시아잔치(새신자 초청 및 환영 주일)'는 당시 8가정인 교회로 현재 400명 중형 교회로의 성장에 한 원동력이 됐다.

늘 전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 특별전도기간을 정해 전 교인들이 총력 전도함으로써 교인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9월 첫째 주 전도대출정식을 하고 매주 점심 식사 후 모여 구역별로 예안데일, 패어팩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흩어져 전도했다. 토요일에는 특별전도팀을 구성해, 마트가 북적이는 저녁 시간 대에 전도했고, 태신자만 317명을 작정해 꾸준히 기도했다.

"한 명이 오더라도 충분합니다. 아니 오지 않더라도..."

한 목사는 "노방전도가 어렵지만 교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다면 귀한 것이다. 한 명도 안오더라도 전도훈련이 될 수 있다'며 격려해 한달의 전도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소년들도 전도에 투입돼 기타를 치며 노방전도에 참여했다. 이번 초청주일에는 56명의 새신자가 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해에는 초청, 환영주일을 통해 30명의 새신자가 등록하기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영어로 된 전도지는 타인종 전도를 목적으로 했다. 56명 중 7명은 타인종 교인들이었다. 전도지를 받고 자진해서 온 새신자도 2명이나 있었다.

홍효채 부목사는 "아직까지도 전도하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 놀랍다"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뻐했다.

한세영 담임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준비한다. 5년 쯤 되니까 서로 뭘 해야 할지 알고 깊이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며 "교회를 처음 나온 분,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 이혼 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초청되고 있다. 특히 상처 입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특별행

사는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초청주일이 새신자들에게 초점 맞춰 교회 문턱을 낮추는 날이라면, 환영주일은 교회의 평상시 예배 모습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신앙생활의 시작을 촉구(?)하는 날이라 할 수 있다.

새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 죄 위해 못박히신 예수' 환영주일이 9일 한세영 목사는 '즐거운 인생'이란 설교를 통해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구원, 성화'의 문제를 짚어내려가며 간략하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설명했다.

한 목사는 "우리가 왜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할까? 용서 받은 자의 은혜와 용서한 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회개한 후에도 이전에 지은 죄의 흔적으로 괴로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되었음을 알라. 못박은 자리에 못을 빼어도 못자국이 남듯이 죄도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죄가 가라앉을 받는 것(시32:1)"이라며 "성령께서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신다"고 선포했다.

환영 주일에는 식사교제 후 케익 커팅식 및 새신자 환영을 위해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특별 공연이 준비돼 한바탕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한편 메시아장로교회는 교회학교, 한글학교, 여름학교, 시니어센터 연장교육을 통해 지역인사화에 교회의 문턱 낮추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권나라 기자

제 6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차세대 참여 독려

▶ 10월 22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11일 기자회견에서 (좌측부터) 정경태 부회장, 이원상 목사, 서욱자 교수, 박주용 회장, 이은애 부회장

오는 10월 22일(토)에 열릴 제 6회 한미조찬기도회가 차세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기자회견에서 박주용 회장은 "앞으로는 조찬기도회 준비위원도 2세들로 채우고, 차세대가 참여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로 연합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황적(1시간, 단체)으로 연합할 뿐 아니라 종적(세대)으로 연합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올해는 조지 하트 목사(워싱턴 바이블칼리지, 캐피탈 신학대학원 총장 서리), 한덕수 주미한국대사, 마크 워너 미연방상원의원이 연설할 예정이다. 미주대통령은 제 2회부터, 한국대통령은 제 3회부터 친서를 보내와 조찬기도회에서 대독했다. 이원상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 SEED 인터내셔널 대표)는 "1세 문화에서 차세대를 연결시키고, 한인 뿐 아니라 타인종도 참여시켜 국가에 기도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회성 행사로 비취질 수 있는 조찬기도회의 의미에 대해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일회적 사건으로 드러

는 등장한다. 그 예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 '미스바금식기도운동'이 그것"이라며 "대선 및 국제적으로 민감한 정세를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드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용 회장은 "조찬기도회의 로고도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본 따 온 것이다. 모세의 두 손을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다목적실에서 드려지며, 한미양국대통령 및 모든 국가지도자들 그리고 열방 국가들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교단과 종파, 종교, 국적을 초월한 기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석회비는 없으며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다. 약 4~500명 참석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석한 전원에게는 장재욱 요리전문가가 제공하는 풍성한 조찬요리(샌드위치)를 제공한다. 22일 열릴 한미국가조찬기도회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열리며 오전 7시부터 좌석배치가 시작된다.

권나라 기자

생명 신학에 입각한 구원의 서정

세계영성문화연구원(대표 임용락 목사)에서 주최한 제 5차 미주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생명 신학에 입각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0일(월)부터 행복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사로는 18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석승궁 목사

와 부인인 신옥자 선교사가 초청됐다. 강사 석승궁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신리총회 소속이며, 현 서울 평강교회 담임목사로 총회신학교 및 신학대학원 학장을 역임했다. 신옥자 선교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석 목사

는 11일 강의에서 "성부"는 주관하는 하나님이며, '성자'는 중보와 대속, '성령'은 완성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구원받은 척 하는 거짓선지자들이 많은 세상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

실한 통회와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야 심령천국, 가정천국, 영생천국으로 갈 수 있다"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영혼구원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석승궁 목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석승궁 목사 초청 제5차 미주 목회자 사모 세미나

신학은 당연히 '생명신학'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며 생명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적 은혜'를 꼽았다. 임용락 목사는 "자칫 설교가 지식적이고 인본적, 기복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죄 사함과 회개가 일어나 진정한 구원

에 이르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세계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던지며 목회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요한 기자



석승궁 목사 초청 제5차 미주 목회자 사모 세미나

GST www.gsti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랑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 ESL 프로그램
-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듣는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과부상,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감동적인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인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2010학년도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공법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
연방법원 및 세무법원 변호사
미국인민 변호사협회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ncil, Brokers, Group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및 유산 상속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 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 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 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 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J7호
02-541-0556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0월 24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일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엔비 엔터테인먼트/온라인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차원이 다른 집전화 — 아이토크비비를 즐겨라~!



30일 환불 보장!

왜 아이토크비비 인가?

- 1 저렴한 요금
- 2 무제한 통화
- 3 다양한 부가서비스
- 4 한국어 고객 서비스
- 5 30일 환불 보장 제도

Global Unlimited Plan \$24.99/월 월별 통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호도 필요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500\$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핸드폰에서도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드려요!
크레딧 행사기간
2011년 10월 17일까지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2.2902

*새고객 보상제도-1년 계약 플랜 가입자에 한함입니다. 계약기간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으신 중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액은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분한테 따라 최대 \$10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전화 회사와의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신 후에 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아이토크비비로 사용할 경우 사용요금 없이 청구, 요금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제도의 최종 해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점대
신규 아이팀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성형 권위자’ 남궁설민 원장 “이젠 영혼 치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노랫말이 들려와 따라가 보니, 환자와 의사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곳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30년 동안 자리잡고 있는 파티마의원(남궁설민 원장)의 부설 ‘뉴아이 암치유연구센터’로, 암 말기 시한부 환자들을 치료함과 동시에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궁설민 원장은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혼과 영을 함께 치료한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암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 처음 상담받을 때는 우울한 얼굴을 하며 죽음에 대해 걱정만 하던 환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치료에 임하게 된다.

남궁설민 원장은 암 치유보다 영혼 치유를 우선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는 “암을 고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암을 고친다 해도 일시적인 삶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와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남궁 원장은 사람들이 성형수술로 예뻐진 뒤에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슬하게 보았다. 때문에 반복적 수술로 인한 출혈 과다로 사망하거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이들도 많았다.

남궁 원장은 그들의 죽음이 허망한 목표는 있었지만 인생의 참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성 동안 흉터나 화상을 없애주는 수술을 하면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그는 세 가지 사건을 겪게 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다.

세 가지 사건 속 하나님의 부르심

첫번째는 30년 전 필수암에 걸린 여성과의 만남이었다. 그녀는 한쪽 다리가 코끼리다리처럼 변했는데도 행복한 표정을 잃지 않으려서, 남궁 원장에게 예

를 당했다. 시속 130km로 달려온 중형차가 그를 덮었던 것이다.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다. 대형사고였는데, 그는 멀쩡히 상처 하나 없었다.

그는 사고 직후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영혼과 육체, 삶과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남궁 원장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이라고 믿는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였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암 전이치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했고, 뉴아이암치유연구센터에 ‘말씀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남궁설민 원장은 “육체는 영혼이 지배한다.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다. 삶과 죽음도 따로 있지 않다. 사는 게 죽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육체는 허상이며 영혼은 실상이다. 암 역시 육체다. 육체가 허상이라면 암도 허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재직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사53:5)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와 질병, 모든 상처를 해결



파티마의원 뉴아이암치유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남궁설민 원장

뉴아이암치유연구센터 통해 무료로 암 전이치유

그는 많은 암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생활고 등의 문제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해결할 수 있다”며 ‘뉴아이기도’(예수 안에 새로운 나를 위한 기도)를 만들었다. 이는 낱수가 바위를 뚫듯이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는 원리로 매일 성경구절암기,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빼지 않고 하게 한다.

이곳을 찾은 환자들로부터 병세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행복·자신감·희망을 되찾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남궁설민 원장은, 환자들을 ‘식구들’이라고 표현하며 각별한 애정과 돈독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뉴아이암치유연구센터는 목회자 사모들을 우선으로 ‘무료 전이치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질병인 암(癌)·아토피·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 무료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남궁설민 원장은 T.P:T.P 과정을 통한 뉴아이 의학으로서 암환자를 전이치유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치료가 아닌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지향하며, 확실한 완치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래 그는 성형수술만 하던 의사였다. 이듬해 대면 이는 한국 톱스타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다

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것이 그에게 놀라웠다. 당시엔 거부했지만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8년 전 일이다. 실직을 했다며 이튿날 만나자던 후배 한 명이 사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알고 보니 그 후배는 폐암에 걸려 있던 터에 실직까지 하자, 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 자살을 택했던 것이다. 교회 성가대장을 하던 심성 고운 친구였다. 부유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만 만나왔던 남궁 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그 때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런데 그 후배가 죽기 전, 남궁 원장은 기이한 경험을 했다. 매일 새벽 4시쯤 저절로 눈이 뜨지고 잠이 오지 않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계속 눈물만 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40일 동안 반복됐다. 후배가 죽던 날 새벽에도 간절하게 기도했다.

남궁 원장은 “나는 그가 천국에 갔다고 믿는다. 왜 40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 지 이제 알게 됐다. 후배를 위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이다”고 말했다.

후배의 죽음으로 인해 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전문가를 만나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은 말기 환자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의와 연결시켜주는 일도 했다. 그 중엔 2년 전 세상을 떠난 유명 여배우 J씨도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세번째였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인근 국도에서 교통사고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남궁 원장은 “우리 영은 원죄로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 그러한 삶 가운데 암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이 망하는 사건이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온다면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가 죽으면 하나를 얻는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고전 15:44)라는 말씀처럼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며 “이것은 한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과 예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마의원(뉴아이암치유연구센터)의 또다른 다른 특징은 환자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과 외로움이다. 암이라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환자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파티마의원은 환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 영혼 구원과 암 치유의 희망을 주는 친구의 역할을 한다고 자신한다.

‘병원 속 교회’의 사역이 과연 암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까? 남궁 원장은 “의학계에서도 많이 견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질병의 고통을 잊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며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수록 육체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도토마사루 지음)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자연이 사람에게 반응하듯 사람도 하나님과 교감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 우러나오고, 도파민과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 고통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뉴아이암치유연구센터는 독일면역연구소와 협력해 세포면역치료방법을 도입했고, 천연항암제·특수 운동법·기계치료·온열요법 등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외에도 결혼·직장생활·신앙 등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피부·비만·탈모·성형·여성건강 등 미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섭렵한 그의 상담은, 많은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파티마의원이 목회자 사모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무료치료 상담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시 10만원 상당의 최첨단 종합피부건강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그는 ‘무료 전이치유 캠페인’에 대해 “목사님들의 참여가 활발했으면 좋겠다. 파티마의원과 함께한다면 암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죽음은 받아들이며, 희망은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의 02)515-1860(한국), www.fatimaback10.com

오유진 기자

법원, 감리교 직무대행의 총회 개최 청원 기각

김국도 목사·감독협의회·본부 “실망스럽다”

법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원 민사1부는 백현기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상무의 행위로 신청한 총회청원을 기각했고, 7일 오후 백 직무대행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김국도 목사와 감독협의회,

본부 등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으며, 총회 개최를 반대했던 강홍복 목사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해 자신이 복권되는 방법이 감리교 정상화에 가장 빠르다는 반응을 각각 나타냈다.

이대용 기자
dwlee@chtoday.co.kr

미래목회포럼, 2012 기획목회 사역설명회

내년도 목회 방향성 제시, 새로운 목회정보 공유

미래목회포럼(대표 김인환 감독)에서 ‘2012 기획목회 사역설명회’를 오는 3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다.

‘특화된 예전, 이렇게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예배를 현대화하고 예전을 새롭게 모색한다. 기획목회 사역설명회는 내년도 목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회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김희태 목사(동광교회)가 ‘임종에서 추모예배까지 장례예식’을, 주서택 목사(청주주님의교회)가 ‘성찬식과 유아세례 예식’,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가 ‘결혼에서 특별한 주례예식’,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가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를 강의하고 사례를 발표한다.

이효상 사무총장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전통적 예전을 어떻게 새로이 디자인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3백명에 한해 접수 받고 있다. 참가비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시 1만원, 25일까지 1만 5천원, 현장등록 2만원이다.

문의: 미래목회포럼(www.miraech.com, 02-762-1004)

이대용 기자

LA 오토덴트

LA AUTO DENT GRAND OPEN!

오토 덴트

&

바디 리페어

오토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평금, 도색없이 펴내는 방법을 오토덴트라 합니다.

BEFORE
AFTER

오토덴트의 원리
오토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오토덴트의 필요성
오토덴트는 안쪽 철판면을 비강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흙집제거/찌그러짐/범퍼복원/코팅 리스반납시, 기분좋은 가격으로~
딱! 하루만에 완벽한 복원가능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p>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p> <p>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hurch.com</p>	<p>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p> <p>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p>	<p>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화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 EM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p> <p>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p>	<p>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p> <p>주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p> <p>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 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p> <p>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p>	<p>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p>	<p>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월-토) 오전 6:30 (수) 오전 10:30 (목) 오전 6:30</p> <p>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p>
<p>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장년)예배 오후 1:30</p> <p>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p>	<p>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p>	<p>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p> <p>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p>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일 목사, MARY KIM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p> <p>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p>	<p>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p> <p>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p>	<p>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p> <p>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p>	<p>들로스교회 담임: 시보천 목사</p> <p>주일예배-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 오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론회: 오후 6:00</p> <p>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p>
<p>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p> <p>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p>	<p>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p> <p>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p>	<p>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p> <p>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성경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p> <p>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c.org</p>	<p>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p> <p>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p>
<p>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p> <p>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p> <p>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p>	<p>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p> <p>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타운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p> <p>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p>
<p>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p> <p>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p>	<p>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수. 12:15, 2:00</p> <p>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p>	<p>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p> <p>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p>	<p>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p> <p>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시</p> <p>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p> <p>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운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p> <p>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p> <p>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p>	<p>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p> <p>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p> <p>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p>
<p>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p>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p> <p>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p>	<p>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 T. (213) 245-4090</p>
<p>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p>	<p>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7:30(토) 오전 7:30(토)</p> <p>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p>	<p>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p> <p>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p> <p>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p>	<p>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화-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p>	<p>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p>
<p>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p>	<p>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p> <p>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업)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점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p> <p>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p>	<p>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p> <p>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p>	<p>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예배 오후 7:00 S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p> <p>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p>

진유철 칼럼

달인 김병만씨를 일으킨 꿈



진 유 철
나한순복음교회 목사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달인 개그맨 김병만씨의 어린 시절은 가난이 일상인 정말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아버지가 영농자금을 빌려 시작한 하우스 농사를 태풍으로 망치면서 온 집안이 빚더미에 올라, 어머니는 식당 허드렛일로 집안을 책임져야 했고, 누나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봉제공장에 다녀야 했고, 두 여동생도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도 고교 졸업과 함께 건설현장 막일을 하다 4층 건물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세.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워 온 연기의 꿈을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 백제대 방송연예과에 세 번, 서울예대 연극과에 여섯 번 탈락했고, 전주 우석대, 서울대, 명지대도 떨어진 경험이 있으니 실패 그 자체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KBS 개그맨 공채에서 세 번, MBC 공채에서 네 번을 떨어졌고, 여덟 번째 성공했으니 말 그대로 칠전팔기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라면 사 먹은 돈도 없애 라면 하나를 사골처럼 고아서 먹기도 했었고, 거둬되는 실패에 너무 힘들어 자살하려고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40알 정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기 위해 대방동의 옥탑방에 올라가다가 불빛이 반짝이는 여의도 방송국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꿈과 목표를 회복하고는, 결국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라는 자서전 책까지 쓰는 오늘의 스타 김병만씨가 된 것입니다.

꿈과 목표는 장애물과 방향을 이기게 합니다. 길을 떠나도, 여행을 해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도 목표가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 전진하지만,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

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작은 실천, 즉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성장하거나 성공하려면 열정적인 태도, 정확한 지식,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가슴에 품었던 우리들의 꿈과 목표를 향한 발걸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꿈만 있으면 꿈만 남습니다. 그러나 꿈에 실천과 헌신의 과정이 더해질 때 꿈은 현실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 오백년 전에 사람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로는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더해지니 지금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큰 꿈도 작은 실천의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을 이루려면 다른 중점이 교실에서 거절감을 용서로 극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의 고통을 인내로 극복하고, 감옥에서 잊혀버려짐의 고통을 충성으로 극복하고,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마침내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2011년도에 개인적으로 꿈꾸고 목표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꿈과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벧2:13) 살람!

김지성 칼럼

보는 것이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김 지 성
글로벌선교교회 목사

자녀교육특강을 TV를 통해 시청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뜨고 있다는 유명 교육학 강사의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보는 것이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열강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마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큰 것을 보게 만들면 된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것을 보여주라. 그들의 미래 활동반경을 좁은 땅 한국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할 수 있는 한 세계가 넓음을 인식시키라. 가능하다면 어릴 때부터 세계를 돌아보게 만들라.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세계지도라도 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좁은 동네를 보며 성장하는 사람과 세계를 보며 성장하는 사람은 생의 결과가 그 차이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의미있는 말이라 생각되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인식론 심리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동

일한 답을 얻습니다. 사물의 존재여부는 인식의 여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사물이 있었다할지라도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인식되어지면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보게 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는 보이는 곳까지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사실은 생각을 통해 인식한 것을 데이터화 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유로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활동반경을 가나안 땅으로 제한시키지는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생활의 본거지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을 당시 세계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집트로 끌어들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30년간 거주하게 하시면서 선진의 문명을 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세계열강의 강한 도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앗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제국들의 침략과 포로생활로 이어지는 슬픈 근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깊이 묵상해보면 그것은 큰 것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배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받은 세계와 역사를 위한 선택이었기에 좁은 마음이 아닌 큰 마음의 소유가 전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마음을 유지하려면 크고 넓은 곳을 볼 수 있어

야만 했었습니다. 현대를 일컬어 기술의 폭발적 향상시대라고 합니다. 과거 100년에 걸쳐 일어났을지라도 기술향상이 요즘은 몇개월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배후에는 인터넷과 무선전화의 보급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무선전화는 인식의 한계를 넓히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니 폭발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는 것이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가설이 정설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크고 넓은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생존은 보장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생존이 아닌 사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꾸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생존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좁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니까 하나님의 뜻까지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주는 마음을 좀더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지구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사무실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담겨진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는 넓다. 그리고 할일은 많다"라고 외쳐 보았습니다. 매일 생존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정작 바라보아야 할 사명은 도외시키고 있는 않은지... 라는 복잡한 생각에서 그리 해본 것입니다.

김한요 칼럼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김 한 요
세리토스 장로교회 목사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어 준지 한 달 만에 운명을 달리했다. 죽기 한 달 전까지 시간 낭비 없이 살았던 자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계 모든 매스컴들이 그의 인생에 대한 조명을 앞 다퉈서 방영하고 있다. 우리 집도 아이폰에 아이패드를 쓰고 있으니, 그가 만든 IT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자기가 창업한 애플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 최고의 회사를 키우기까지 여한 없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자였음이 틀림이 없다. 그는 비록 대학중퇴를 한 자였으나, 그는 소위 성공자로 인정을 받아 2005년도에는 세계 최고 대학의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까지 하게 된다.

스티브 잡스는 명문대 졸업생들 앞에서 자신이 대학중퇴자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그것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지금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도전했다.

그리고 그는 졸업연설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졸업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말을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치료하기 힘들다는 췌장암 수술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래서 그런

지 그의 말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질문과 함께 하루를 출발했다고 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할 것인가?" 그는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일을 했다고 한다.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 말씀과 함께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란다.

스티브 잡스는 짧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알찬 인생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월을 아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매일 죽음을 묵상했기 때문이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명언까지 남긴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크다. 우리 성도는 죽음 이후 부활과 천국을 믿는 자들이며, 더욱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나의 십자가(죽음)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경산한의료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박종길 칼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박종길
엘비인 은누리교회 목사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한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볼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

와 걱정은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의 결론이 자살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을 이겨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과 의미를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창조하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1, 우리말성경)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길을 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근심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신

실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어니 J. 젤린스키의 "슬데없는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걱정의 40퍼센트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퍼센트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퍼센트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퍼센트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퍼센트는 우리가 바뀌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분의 글에 따르면 걱정이거나 근심, 염려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게 주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직면하여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는 기도문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벧전 5:7, 표준새번역)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주 간 평안하십시오.

김영길 칼럼

구두를 닦아주신 아저씨



김영길
감사한인교회 목사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구두를 닦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음식점 입구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 아내가 "여보, 구두 좀 닦으세요."하는 말을 들었는지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구두를 벗어놓고 가세요. 이 식당에 오신 분들은 다 공짜로 닦아 드립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구두를 닦을 수 있는 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아내가 "식사하고 나올 때 틈을 드리면 되지요."하면서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요즘은 살살 쳐도 꽤 아프니다.) 남자들은 구두가 반짝거리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오랜만에 내 구두에 빛이 났습니다. 가족이 부드러워서 내 재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광을 내본 적이 없던 구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가 봅니다. 내 구두뿐만이 아니라 이미 닦아

놓은 구두들도 한결 같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날 오후 내내 식당 앞에서 구두를 닦던 그 분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 하루에 수입은 얼마나 될까? 구두 닦는 일을 전직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두에 약을 바르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곳에서 구두를 닦게 된 연유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실이 아닌 단순한 상상력의 작품입니다. 하루는 키가 왜소한 초로의 아저씨가 식당주인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드리면 안될까요?" 영문을 모르는 사장이 처음에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사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님들의 구두를 제가 공짜로 닦아드릴게요. 그러면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손님들이 이 식당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 늘처럼 구두 닦는 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식당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나도 한두 번 더 찾아갔을 것입니다. 식당주인은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고, 손님들은 식사하는 동안에 깨끗한 구두를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아저씨는 자릿세를 내지 않고도 구두 닦는 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해 보면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구두를 닦으시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진지하다 못해 숭고해보였습니다.

건강 칼럼

출산 여성의 42%, 임신 중보다 오히려 허리통증 증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음식 하나, 작은 행동마저도 조심스럽다. 특히 태어날 아기를 위해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산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시기가기도 하다. 특히 허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나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부위로, 임신 중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겠지'하면서 방심했다가는 허리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쉽다. 최근 조사에서 출산 이후의 여성들 중 상당수가 임신 중에 경험했던 통증을 출산 이후에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임신 중 요통을 간과하는 임신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10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출산한 지 3년 이내의 여성 118명을 대상으로 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이 출산과 요통의 상관관계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신 중과 출산 후에 따른 통증지수(VAS)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과 비교했을 때 출산 후에 허리 통증이 그대로이거나(29%) 증가했다(42%)는 응답이 전체의 71%에 달했다(통계1) 임신 중에 생긴 통증이 출산 이후에도 이어지거나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또한 허리통증이 그대로이거나 증가했다는 응답자 중 통증지수 7이상(일상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했다(통계2). 이는 임신과 출산이 산후까지 지속적으로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 중년 여성들 중 '애 낳고부터 허리가 아팠다'며 허리 통증의 시작을 출산 후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위의 응답이 근거가 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윤제필 대표원장은 "임신을 하면 태아가 자라 배가 나오면서 체중의 중심이 신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에 따라 체중의 부하를 감당하고 있는 척추와 골반, 무릎, 발목 등의 부위에 부담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신 5개월 이후부터 분비되는 릴렉신 호르몬은 치골관절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 질과 자궁의 부하를 넓혀주기 쉽게 나오는데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허리와 골반 부위의 인대가 느슨해져 요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평소 척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89%가 통증이 그대로이거나 심각해졌다고 응답해(통계3), 전체 평균인 71%보다 무려 15%나 높은 수치를 보여, 출산 후 허리상태가 악화될 확률이 더욱 높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제필 대표원장은 "분만 시에는 매우 극심한 복압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복근과 복강내의 근육들이 태아와 양수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척추체와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며 "이때 디스크의 후방탈출을 더욱 유발하게 되어 심하지 않은 디스크 탈출도 악화되고 통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신 중, 특히 초기에는 요통 치료를 위한 무리한 운동이나 치료가 태아 착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출산 이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통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설문조사 결과, 출산 후 많은 여성들이 요통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병원을 찾겠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고, 쉬거나(46%) 참거나(15%) 파스를 붙이는(10%) 등의 취했다(통계4).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는 출산 후 통증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출산 후 여성들의 허리 건강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자가체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49%가 허리디스크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고, 8%는 척추과전만증이, 둘 다 의심되는 경우도 12%에 달할 정도로 출산 후 여성들의 척추는 위험하고 있었다(통계5). 그렇다면 출산 후에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관리가 필요 할까. 윤제필 대표원장은 "임신 계획 전에 하는 관리가 가장 이상적이며 자연분만은 출산 후 3주 후부터, 제왕 절개의 경우는 8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척추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산 후 요통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출산을 하면 골반이 벌어지며 허리 주변 뼈마디와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력이 떨어지면 서 몸의 전체적인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 척추 관리를 소홀히 하면 퇴행성 척추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완된 뼈와 근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며 "출산 후 허리와 골반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퇴행성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신 기간

중이라도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종아리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있고, 손과 발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경추나 요추의 척추 질환의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자생한방병원의 여성클리닉에서는 임신 전 추나수기요법을 통해 불균형한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여 태아와 양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자궁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한약 처방을 통해 수정란의 착상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 중에 자궁에 남아 있는 여혈을 제거하는 한약 처방을 한 뒤에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나수기요법과 척추와 골반의 인대, 근육을 강화해 산후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침, 약침요법, 한약 치료를 실시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인생에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다. 이 행복한 축제의 후유증이 남는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임신 계획전과 출산 후에 꾸준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안정적인 치료법으로 요통을 관리해야 한다. 도움말: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대표원장 윤제필

Advertisement for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 (Tampa, FL). Includes logo, contact information, and a table of academic programs. The table lists degrees like Bachelor of Arts in Theology, Master of Divinity, and Doctor of Ministry, along with their respective credits and features. It also mentions a 50% tuition waiver for certain programs.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헤드됩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 일 적절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장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를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10'x10')(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323)855-5687 / (213)200-3050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뚫어!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 교체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펜서,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면도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결핵성,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LIC # 531243

웍스/자동차,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세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A LINE IN THE SAND



미국은 우리 조국에 복음을 전해주었으며 6.25를 비롯하여 위기때마다 우리 고국을 구해 준 나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게 될 우리의 나라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대부흥을 체험하도록

로즈 볼에서 10만명이 함께하는 연합 기도회에

모든 한인교회가 오너십을 가지고 참석합시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대각성을 위한

11.11.11 로즈 볼 10만 명 다민족



연합 기도 대회

역사적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인 교회가 이 연합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금요기도회와 2세들의 모임을 비롯한 모든 금요모임을 로즈 볼에서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정명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 일시:** 2011년 11월 11일 (금-Veteran's Day) 오전 11시~저녁 9시
한인 집중참가시간: 6:15pm~8:15pm (한인 1세/2세 목회자들이 전체기도 인도함)
- 장소:** 로즈 볼 스타디움(ROSE BOWL STADIUM)
1001 Rose Bowl Drive, Pasadena, California
- 참가인원:** 미국과 해외에서 10만 명 참가 예상 (한인 10,000명)
- 취지 및 목적:**
 - 1)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무너져가는 도덕적 부패와 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
 - 2)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영적 부흥과 새로운 마지막 영적 추수를 위한 도전
 - 3) 이 시대를 향하신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협력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연합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들은 단지 섬긴다는 취지이다.
- 주최:** Rose Bowl Gathering
- 한인준비위원회:** 대회주관-미주기독교총연합회 (213-384-5232)
- 공동주최:**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 목사회, 캘리포니아 각지역 교협과 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JAMA
- 후원:** 한국일보, 중앙일보, CTS, CGN, 미주복음방송, 기독교방송, 5개 기독교신문 등
- 자세한안내:** 한국어 626-372-5151, 213-384-5232 / English 626-372-4163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14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28



11.11.2011

626-372-5151 / 213-384-5232

www.RoseBowlGathering.info